'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동리 신재효 탄신 206주년 기념 14일~16일 고창읍성 특설무대

동리 신재효 탄신 206주년 기념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고창읍성 앞 특설무대 및 동리국악당에서 개최된다.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가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은 동리 신재효의 정 신을 계승하여 전통문화와 소리를 테마로 전 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드높이고, 이를 보 전해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는 대한민국 유일 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명인 · 명창들이 만드는 전통예술의 진수가 펼쳐질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은 첫째 날인 14일 오후 7시 20분, '소리길 · 전통 의 대를 잇다'를 주제로 고창읍성 앞 특설무대 에서 개막제 및 개막공연 'KBS 국악한마당'을 선보인다.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KBS 국악한마당은 한국의집예술단의 화려하면서도 생동감있는 오고무로 시작해, 김영임 명창의 흥겨운경기민요, 왕기철 명창과 제자들의 무대, 전통예약원 누리춤타의 유산가, 난장앤판의 신명나는 전통연회 등 관객들과 한바탕 신명나는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개막무대를 만들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고창읍성 앞 특설무대에 서 '고창 국악인들의 소리길 동행'이라는 주제



로 소리길·고창에 물들다 제1부(오후 1시 30분)공연이 펼쳐지고, 제2부(오후 4시) 소리 길·전통에 새로움을 빚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판굿, 교방굿거리, 남도민요, 진도북춤, 미당창 극 심봉사 올라기는 대목을 선보인다.

제3부(오후 7시) 소리길 신명 풍월동락 은 전통예악원 누리춤터와 나주시립국악단의 특 별출연으로 춤과 소리로 엮은 풍속화첩을 진 행한다.

제4부(오후 9시)는 동리국악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리길 만정소리를 만나다 판소리 연창 전을 만정의 소리길과 만정제 흥보가로 나누 어 연다(출연 : 김미숙, 서명희, 한계명, 김백 성, 김혜영, 박수진 / 고수 : 신규식). 셋째 날인 16일 오후 2시부터는 고창읍성 앞 특설무대에서 '소리길 · 시대의 이품을 품다' 창작 판소리전으로 이준 열시가, 동화농민혁명 가, 안중근 열시가 등을 펼친다(출연 : 정순임, 박양덕, 김연, 양은주 / 고수 : 임청현).

이어 오후 4시, '소리길·樂으로 어우르다'는 KBS국악관현악단이 대취타, 해금독주, 사물놀이 등 수준 높은 국악의 진수를 소리길 위해 풀어낸다.

2018 대한민국 판소리 한미당 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폐막제 무대는 오후 7시, 소리길 · 동리정시에 다시 핀다 를 주제로 왕기석 명창, 이난초 명창과 동리문화예술단이 모양성 풍류 (남원산성 부채입춤), 태평무, 흥보가, 심청가 등으로 닫는 미당을 진행한다.

군 관계지는 "이번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판소리가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스며들게 하고, 고창의 지랑스러운 인물인 신재효 선생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판소리와 전통예술을 한 차원 높은예술로 발전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가을의 초입에 전통문화예술의 향연을 고창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라다"고 전했다.

모든 관람료는 무료이며 야외행시는 우천 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지세한 내용은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 동리문화사업회 (063-561-3517)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해 열린 제6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자료사진.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열린다

적성검사 통한 진로 · 직업 체험 · 가요제 · 발표회 등 진행

제7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cum)'이 15일 무주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 무주지구협의회(대표 이한승)가 주최하고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정현)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가 주관하며 무주군을비롯한 20여개 단체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진로・직업체험과 기념식, 동아리발표회, 쌍백합 청소년가요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시 50분 안성청소년문화의집(수어),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난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며 진 로·직업체험 부스는 11시에서 오후 1시 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소방체험과 심폐소생술, 사격, 수공예, 원어민과의 영 어 게임, 샌드위치 만들기 등 참여 기관 들과 함께하는 직업체험부터 무주중학교 바리스타, 영상미디어 동아리, 그리고 무 주고등학교 봉사, 뷰티, 진로 등 동아리 체험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상담부스에서 먼저 적성검사 와 해석 상담을 받은 후 검사결과에 맞 는 유형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각 부스에는 분야 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자리해 참가자 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동아리발표회와 쌍백합 청소년 가요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그리고 본선에 오른 14팀의 경연이 예고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cum)'은 숨은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소질을 탐색·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해마다 5백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자리를 함께 해 문화공연을 즐기며 직·간접적인 체험의 장을 갖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군산대 박물관, '꽃: 四色, 思索' 기획전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 제외 · 누구나 관람 가능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기문)이 박물관 소장품 중 꽃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모아 기획전시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꽃: 四 色, 思索'을 주제로 한 이 기획전은 내년 2월 까지 진행된다.

박물관 소장품 5,000여 점 중 꽃과 관련된 150여 점의 유물을 선별하였고 국화, 연꽃, 모란, 매화 등 유물에 표현된 대표적인 꽃을 주제로 전시하였다.

전시품들은 고려청자, 청화백자, 담뱃대, 바느질 상자 등 시대와 형태,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여 유물 속에 표현된 꽃의 종류와 꽃이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받이다.

특히 전시 공간에는 유물 관람과 함께 '꽃보다 이름다운 당신'이라는 주제로 관람자와 전시품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군산대학교 황룡 축제기간인 9월 20일 '꽃(책)갈피 만들기'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꽃: 四色, 思索'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정기문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생활사의 시각에서 조상들의 숨결과 멋이 고스란히 담 겨있는 소장품을 재분류하여 전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소장품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전시를 기획하 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지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지

김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극단 까치동' 공연

어머니들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세상에 한 풀이하는 여정을 다채로운 표현으로 작품화한 '각시, 마고' 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 분, 15일 오후 2시에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정한 여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찾아

이번 공연은 남편과 세상으로부터 평생 멸 시와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각시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태초의 거대여신 마 고를 찾아 나서는 길에 세계 여러 곳의 고통 받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마고 여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편 극단 까치동은 2018년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김제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상주단체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제=곽노태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